

# 얼음골 케이블카, 영축총림 환경파괴 '시끌'

## 통도사에서 긴급토론회 열려

경남 밀양지역의 얼음골 케이블카는 재야산과 영축산 일대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가시산도립공원-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정점,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통도사에서 6월 18일 열린 현안긴급토론회에서 나왔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자연공원 안 케이블카의 문제점과 가시산도립공원-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정점'을 주제로 "통도사, 석남사, 표충사, 내원사 등 유명 사찰과 역사문화 등이 위치한 이른바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케이블카 사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윤 처장은 천연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된 얼음골과 관련해 "얼음골을 개발해 민간의 매우 희귀한 자연현상"이라며 "얼음골과 5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케이블카의 선로 일부는 얼음골의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처장의 주제 발표 후 통도사 사회국장인 진용 스님과 부산대 최승현 교수, 밀양참여시민연대 이철현 대표, 울산생명의숲 윤석 사무국장,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사무국장, 낙동강유역환경청 홍동근 환경관리국장 등이 케이블카 설치 이후 생태 파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사무국장은 "경상남도가 수차례에 걸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통과시켰다"고 현 정부의 개발정책을 성토했다.

밀양참여시민연대 이철현 대표 역시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인데 땅장사를 하는 것 같다"며 "한번 손이 닿은 자연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 홍동근 환경관리국장은 "법규에 어긋나는 것이 없어 통과시켰을 뿐"이라면서 추가훼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통도사가 6월 18일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문제를 놓고 현안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밀양상공회의소와 밀양시는 "밀양이 아닌 타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영남알프

스는 경남 동부의 큰 산군으로 영축이 아닌 타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영남알프

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불국토를 찾아서 용호사회복지관

## 방과 후 시간을 희망의 기회로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사고라도 날까봐 늘 불안했는데 이번 안심이에요(장명규·41)." "숙제도 도와주고 영어도 가르쳐주니까 학원이나 다름없어요(김미진·41)." "저녁밥까지 먹여 주니까 정말 고마워요(조점진·66)."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2007년부터 지역 내 저소득 결손가정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공부방 '망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결손가정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초학습과 일상생활지도, 집단활동과 석식지원 등을 하는 종합적인 아동보호프로그램이다.

이춘성 관장은 "가정의 경제 형편이 열악할수록 어린이가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 영화 관람, 운동경기 관람, 미술전시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명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김보현씨는 "이곳 아이들은 힘이 없고 유난히 왜소해서 마음이 아프다"며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한창 성장기인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부재로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지역 적십자 부녀봉사회의 도움을 받아 매일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보조금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하다 보니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서 보해 사회복지사는 "처음 왔을 때 등 학교 3학년이었는데 한글

## 6·15공동선언 8주년 불법으로 통일 앞당겨

경남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에서 6월 21일 '6·15km 통일로 가는 걷기대회 및 한여름 밤의 통일음악회'가 열렸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통일이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의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주사 일대에서 진행된 6·15km 통일로 가는 걷기대회는 각 코스마다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음악회 행사 중 추첨을 통해 북한상품, 자전거, 영화티켓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했다. 도착지점은 한여름 밤의 통일음악회가 열리는 특설무대.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한여름 밤의 통일음악회 관람으로 축제를 즐겼다. 한여름 밤의 통일음악회는 비보이팀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퓨전클래식, 통기타, 청소년 밴드, 통일노래 합창 등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했다.

박지원 기자

## 제1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제

### 부산시청 등대광장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불교연합회는 6월 1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등대광장에서 부산·울산·경남의 독립유공자 600여명을 합동으로 추모하는 제1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된 추모대제에서 1부는 영산회상범패보존회(회장 법진 스님)의 영산재와 열불공양회(회장 하정선)의 육법공양으로 진행됐다. 2부는 국민의례, 삼귀의례, 경찰악대의 진훈곡 연주, <반야심경> 봉독, 보현행원 합창, 영제 스님(삼광사 주지)의 고불문, 오미희 부회장(사)국제차문화교류재단)의 헌다, 박성종 회장(독립유공자 유족회)의 축문, 현화현향으로 이어졌다. 3부는 추모 장엄염불 및 합창, 합동분향, 사홍서원, 산회가로 마무리됐다.

박성종 회장은 축문을 통해 "광복



부산불교연합회가 6월 19일 제1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제를 봉행했다.

63주년을 맞아 차츰 잊혀져가는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인사말에서 "일신의 안위를 초개처럼 내던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투사와 이국 땅에서 풍찬 노숙하던 애국 열사들이 피땀으로 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산이 가진 모든 역량과 잠재력으로 일깨워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 부산 범어사 100일 기도 및 초청 법회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가 '100일 지장기도 및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연다. 지장제일인 6월 21일 입제, 27일 초제를 시작으로 9월 26일 막제 및 29일 회향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범어사 설법전에서 마련되는 이번 기도회는 다라니기도, 영가시식 및 <금강경> 독송 순으로 이뤄진다.

100일 지장기도 동안 총 16명의 큰스님 법문을 듣는 릴레이 법석도 마련된다. 첫날인 21일 상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필두로 27일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7월 4일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 등 총 16인이 릴레이 법문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051)508-3636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구독 문의 (051)632-0064

##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위해

후 혼자 지내는 비율이 높고 이혼 학부진으로 이어져 교육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난다. 또 방과 후 어린이 방치는 결식과 영양부족, 비행, 범죄에의 노출, 안전사고 등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한다"며 방과 후 공부방을 열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지역주민센터에서 추천받거나 부모가 직접 복지관을 방문 접수해 등록된 12명의 어린이가 '망기교실'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아이들의 '특별한 선생님'이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학습지도 봉사단은 학교 공부를 기본으로 숙제를 도와주고, 부족한 기초학습을 지도한다.

조차 읽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을 정도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어린이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며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춘성 관장은 "책걸상이 없더니 커다란 원탁에 둘러앉아 수업을 하고 있다. 한창 성장기인데 자세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안타깝다"며 "용호사회복지관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더 많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주변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이어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쉼터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051)628-6737 박지원 기자

## 대통합종단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종단에 유의 하십시오.

###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 총무원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 경남총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총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김해,창원총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

## 내 몸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를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름,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편마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제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지질, 경력증강(회춘), 병에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약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 가. 1일차 (토요일) 09:00~22:00
  - ◆ 우주의 기운
  -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 5행으로 본 인체

-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 신비한 비장따주기
  -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 병 예방 비법
  - ◆ 실습
- 나. 2일차 (일요일) 09:00~13:00
- ◆ 수치의 비밀
  -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 작명 비법
  - ◆ 고태 비법
  - ◆ 수상 및 관상 보감
  -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6. 28(토) 오전 9시 ~ 6. 29(일) 오후 1시(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유왕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선착순 10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